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

JCCT 2023-11-1

대학생 영작문에 나타난 관사 오류연구

A Study on English Article Errors in College Students' Writing

김우영*

Kim, Wooyoung*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어 관사 오류에 관한 연구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관사 체계가 없는 상황의 영어학습자들에게는 제2 언어(L2)인 영어 관사 체계를 습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게 되어 영어학습자들은 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영어 관사 체계 습득에 있어 학습자가 초보에서 고급 단계에 이르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오류와 실수가 무수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학습자는 자기 나름대로 외국어에 대한 언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한다. 학습자의 발화에서 발생하는 관사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오류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지 또한 그러한 오류가 단순히 모국어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모국어와 영어 사이에 나타나는 전이 현상 때문인지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영작문을 분석한 결과, 영어학습자들은 특히 정관사(the)와 부정관사(a/an)의 사용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통해서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무관사(zero) 보다는 정관사(the)나 부정관사(a/an)에 대한 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진 지도가 매우 필요하다.

주요어 :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관사 오류, 영작문, 문법 오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y Korean English speakers misunderstand the English article system, which article Korean EFL learners use more accurately in their English writings, and implications for English writing instruction from Korean EFL learners' utterances.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 system by non-native English speakers. Those studies agree that acquiring English articles is difficult for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s a result, in this study, many English learners use the definite and indefinite articles a/an. Many wrote articles from their writings, and occasionally, errors of excessive use of definite articles occurred. Through thi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a Korean English learner whose native language has no articles chooses the English article system in speech. It is based on the elicited production of the Korean English learner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teaching English writing in the classroom. When English instructors teach Korean English learners to write English,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practice the correct usage of definite articles or indefinite articles.

Key words : definite articles, indefinite articles, zero articles, writing instruction, Korean EFL learners

*정회원, 한세대학교 영어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2,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nabawe@hansei.ac.kr
Dept. of English, Hansei Univ, Korea

I. 서 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에서도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교육용 콘텐츠들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는 더 이상 일부 국가의 언어가 아닌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의사소통 매체로서 영어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학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올바른 영어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 교육 상황(EFL)에서 모국어 외에 제2 언어(L2)로 영어를 학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처럼 외국어 습득에서 학습자가 초보에서 고급 단계까지 이르는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오류와 실수를 무수히 반복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학습자는 자기 나름대로 외국어에 대한 언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한다[1]. 우리는 모국어를 유창하게 할지라도 실제 말하거나 쓰기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정작 학습자는 자신이 오류에 대해 인식도 못 한 채 사용하고 있는 화석화(fossilization) 현상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자의 발화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오류를 얼마나 자주 하게 되는지 또한 그 오류가 단순히 모국어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에 나타나는 전이 현상 때문인지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 중들에 하나가 학생들이 문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작문 활동에서는 여러 문법적 오류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L2 학습자가 영어 작문 시 범하게 되는 오류가 중간언어(interlanguage)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빈번히 나타나는 영어 관사의 사용상 오류를 조사하고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따른 오류 패턴의 차이를 조사하였다[2-5]. 또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목표 언어인 영어를 비교하여 그 문법적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오류분석(Error Analysis) 및 선행연구

외국어 학습 이론에서 모국어(L1)의 체계가 외국어(L2) 습득의 주요 장벽이라고 여기고 있어 외국어 학습의 성공은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예측하고 오류를 예방하는 데 있다. 외국어(L2) 학습에서 오류분석은 대조 분석 가설과 오류분석 가설로 구분되고 있는데, 먼저 대조 분석 가설은 외국어 학습 이론과 언어전이 이론의 맥락에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데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처럼 대조 분석 가설은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부정전이로 인한 학습자 오류분석 연구에 초점을 두고, 모국어와 목표어의 보편성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학습 장애를 예측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대조 분석 가설에서는 언어 습득은 올바른 언어입력과 긍정적 강화를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모국어의 습관으로 인해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끼치거나 방해하게 되어 학습자가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달리 오류분석 가설에서는 외국어 습득은 반복하여 이뤄지는 습관 형성이 아닌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으로 보고 외국어 습득 시 발생하게 되는 오류가 언어 습득 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6-7]. 오류분석 가설에서는 L1과 L2 사이의 간극과 학습 난이도를 잘 인식하게 되면 외국어를 배우기가 더 쉽다고 한다. 언어 습득에는 많은 요인이 고려되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L1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L2 습득에서도 오류를 포함하여 L1 습득에서와 같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에서 지지르는 실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L2 습득 과정에서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오류(error)와 무작위적인 실수(mistake)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오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8]. 학습자 언어에서 오류의 원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9]. 첫째, 상황적 맥락(situational context) 오류는 학습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언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시간이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로서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야 하며,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언어적 맥락

(linguistic context) 오류는 특정 문장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오류이며,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은 문장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언어 전이를 말하는데, L1과 L2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면 L1에 대한 지식이 L2의 습득을 방해할 수 있으며 L1과 L2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면 L1에 대한 지식이 L2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으로 즉, 제2 언어 습득에서 모국어와 사이에 유사점이 많으면 긍정적인 전이효과가 발생하고, 차이가 크면 부정적 전이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오류에 대해 모국어(L1)의 간섭(interference)으로 인한 언어 간 전이 오류(interlingual errors)와 목표 언어 내의 언어 내 전이 오류(interlingual errors)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학습자의 중급 언어 체계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10].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는 언어 학습 초기에 나타나게 되며, 모국어와 L2의 문법 체계와 구조의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전이 현상이다. 반면에 대상어 자체의 전이 오류는 L2의 복잡한 규칙을 불필요하게 확장 적용하거나 유추하거나 대상어 규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또한 L2 습득 과정에서 선행 학습된 모국어의 언어 형태와 구조가 L2 습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어휘나 문장 구조를 부정확하게 발화하는 오류가 초래되기 때문에 L2 학습에 있어 모국어와의 구조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11]. 이러한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단어의 모호성, 단어 순서에 대한 일치 부족, 구문 구조 간의 불일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언어 내 전이 오류는 모국어와 무관하게 L2 자체의 어려움이나 복잡성으로 인해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L2 학습의 초기 단계에 잘못 선행 학습된 L2 형태가 중급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남아있게 되어 목표어의 형태 학습에 방해로 작용할 수 있다[12]. 전이 유형을 보면 모국어가 목표어에 미치는 영향을 전이라 하는데, 모국어와 목표어는 어떤 면에서 유사하거나 다르므로 전이의 발달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네거티브전이는 과잉일반화와 간섭으로 구분되며, 과잉일반화는 L1→L1, L2→L2에서만 발생하는 언어 내 전이로 대상 언어 자체의 규칙 및 시스템으로 인해 새로운 학습에 영향을 준다. 간섭은 L1→L2, L2→L1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언어 간 전

이이며,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는 간섭에 해당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경기도 H 대학의 영작문 수업을 수강한 1, 2학년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이들 학생은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1학년 35명 2학년 17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연령분포는 19세부터 22세까지이며 남학생 12명 여학생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모의 토익을 치르도록 하여 그들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는 500점 미만 32명, 551~799점 15명, 800점 이상 5명의 학생으로 분포되었고 평균 점수는 668점을 가진 학생들로 나타났다.

EFL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동적 반응에 의한 데이터 분석보다는 작문, 문장 채우기, 인터뷰 등을 통해 오류를 산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표현중심 학습(production tasks)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지선다 문제나 오류 구별 문제와 같은 반응적인 검사 방식은 부적절합니다[13]. 이를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영작문 결과에서 대학생 수준의 EFL 학습자가 범하는 관사 오류를 조사, 구분, 분류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오류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영작문에서 나타난 오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이 언어 규칙 학습 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의 오류들과 제한된 경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오류들 즉, 언어 내 오류(intralingual errors)와 발달오류(developmental errors)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작문 시 나타나는 관사 오류를 분석하여 해당 문법 요소를 실제 수업 시간에 도입하고, 의사소통 활동과 병행하여 관사오류에 관한 문법 교육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과연 영어 관사의 사용상 오류 방지에 효과가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실험 참가 학생들은 작문 시 나타난 영어 관사 사용에 있어 어떤 오류를 가져오는가?

1) 참여한 대학생들에게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관사 오류는 무엇이며?

2) 단순 문법 인지 시험과 실제 영어 글쓰기에서 범해지는 관사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발달 오류는 어떻게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2. 자료 수집 및 분석

학습자가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때 발생하는 문법적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영작문 수강생들의 영어 작문 결과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학습자의 영어 작문 결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제외하고 오류가 포함된 350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Lennon의 문장 오류분석법을 사용하여 대체, 생략, 첨가, 어순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14]. 범주별 오류를 분류할 때 학습자가 단어와 문장의 불필요한 추가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첨가 오류, 필요한 요소가 단어와 문장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누락 오류로, 의미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오류와 단어의 철자가 틀렸을 때 대체 오류로 분류하였으며 문장이 영어 어순에 맞지 않으면 어순 오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에서 빈번한 일으키는 오류를 구별하기 위해 학습자의 오류 수와 오류율 비교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전체 오류 수 대비 각 항목의 오류율을 계산하여 전체 오류 수에 대한 항목별 오류 비율을 측정하였다.

둘째, 각 항목에 대한 오류율을 오류 범주의 항목당 단어 총수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면 전체 오류 항목 중 일부 오류가 비교할 수 있고 각 항목 내에서 대체, 생략, 첨가 및 어순 범주 중 가장 오류가 많은 항목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문법 오류 패턴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를 수준별로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오류 패턴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평가자 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명의 원어민 교수가 부분 작문 결과를 일관성과 논리성으로 가지고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평가 간 일치도는 97%로 평가자 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작문 작성 시 오류를 직접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오류가 잦았을

때는 연구 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강의 후 지도해 주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를 위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 후의 별다른 학습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가 된 상태만을 고려해 시험을 통한 학습자의 자료 수집, 오류의 확인 및 분석, 오류에 대한 설명, 결과 및 토의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관사 중에서 부정관사 오류를 중심으로 하였다. 관사 체계가 없는 제1언어 (L1)에서 제2언어 (L2)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관사를 사용할 때 더 많은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 또한 관사 체계가 없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관사가 의미 매개변수에 의해 지배된다고 한다[15].

그 이유는 관사는 한국어에는 없어서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어의 부정관사 a와 an의 쓰임에 관해 관사의 올바른 사용을 익히게 한 후 응용과정에서 단순 구문과 하나의 문장을 영작하게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작문이 주어졌다.

관사 부분에서 학생들은 a와 an의 구분에 대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세 종류의 테스트를 통해 부정관사 오류, 정관사 오류 또는 관사 생략의 오류 등을 다음의 예문과 같이 점검해 보았다.

[1] INCORRECT: My a favorite food is the fruit.

CORRECT: My favorite food is the fruit.

[2] INCORRECT: I'm on diet, I have apple or orange every morning.

CORRECT: I'm on a diet, I have an apple or (an) orange every morning.

[3] INCORRECT: That's interesting question.

CORRECT: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4] INCORRECT: During fall and winter I'm coming to school by car.

CORRECT: During the fall and winter I'm coming to school by car.

[5] INCORRECT: I don't have job currently, but I have job in summer.

CORRECT: I don't have a job currently, but I have a job in the summer.

표 1. 관사의 오류 형태별 빈도

Table 1. Frequency of Article Error Types

	정관사(the)		부정관사(a/an)		무관사(zero)	
	freq.	%	freq.	%	freq.	%
the	875.68	93.68	53.25	9.62	131.53	30.27
a/an	7.68	0.82	463.64	83.63	13.35	3.07
zero	51.34	5.50	37.45	6.75	289.63	66.66
합계	934.7	100	554.34	100	434.51	100

<표 1>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정관사가 다른 관사로 대체하는 오류빈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정관사(the)의 경우 행렬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부정관사를 사용해야 할 때 정관사(the)를 사용하는 오류가 9.62% 발생했음을 나타내며, 무관사(zero)를 사용할 곳에 정관사(the)를 사용하는 오류가 30.27%를 나타내는 높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관사(a / an) 대신 무관사(zero)로 잘못 쓰인 경우는 6.75%의 오류를 보였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3.07%로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정관사(the)가 사용되는 대신 무관사(zero)를 사용하는 오류는 5.50%이며, 부정관사(a / an)를 사용하는 오류는 0.82%로 비교적 매우 오류가 낮게 나타났다. <표 1>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부정관사와 무관사의 오용 빈도는 낮지만, 정관사의 오용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도 계수 오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법적 오류보다 의미론적 또는 관사 사용상 실제적 오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법 오류는 단수 명사에는 부정관사를, 복수형 또는 물질명사에는 무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명사의 가산성에 대한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과용하기보다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빈칸 채우기(cloze) 테스트에서는 정관사를 과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관사 오류 유형의 경우 고유 보통명사 앞과 특정 문맥에서 더 흔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특히 물질명에 대한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낮은 숙련도의 참가자는 물질명사와 가산명사 사용에 더 어려움이 있었지만, 숙련도가 높은 참가자는 특히 문맥에 따라 가산성이 달라지는 명사에서 어려움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문제가 문맥 의존적 명사에 대한 이러한 오류는 종종 정관사(the)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주로 관사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관사 누락 오류와 관사 규칙을 의식하여 과잉 확장 또는 과소 적용을 통해 불필요한 관사를 삽입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6-17].

표 2. 관사의 오류

Table 2. Error Frequency of Articles

오류형태 Error Type		오류 빈도 Freq. of errors	오류 합 total errors (%)
관사 대신 무관사		37.45	10.36
무관사 대신 정관사 사용 오류	특정 불가산명사	21.89	9.48
	특정 복수형 명사	43.52	17.62
	비특정 복수형 명사	34.75	13.43
	불가산명사 무관사대신 정관사 사용	16.35	6.96
관사 대신 정관사 사용하는 특정명사		40.58	15.53

<표 2>는 명사 가산성에 따른 주요 관사 오류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학생들의 영작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류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무관사(zero)하는 대신 정관사(the)를 붙여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은 특정한 복수형 명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정관사(a/an) 대신 정관사(the)를 사용하는 오류가 뒤따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것은 부정관사(a/an)대신 정관사(the)를 사용하는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 특정명사에서 오류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무관사를 해야할 곳에 부정관사(a/an)을 사용하는 오류와 정관사(the)대신 부정관사(a/an)을 사용하는 오류는 매우 적어 참가 학습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무관사를 해야할 곳에 정관사(the)를 사용하는 오류는 특정 명사에서든 아니든 그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류가 나타났다.

L1에 관사 체계가 없는 영어 L2 학습자의 경우 특정 부정대명사에서 더 많은 오류가 발견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려면 추가 통계 분석이 필요했다. 부정관사(a/an) 대신 정관사(the)를 사용하는 오류에 대한 특정 명사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를 통해 이뤄졌다. *t*-검정을 통해 부정관사(a/an) 대신 정관사(the)를 사용하는 오류가 특정 명사에서 오는 것과 와 비특정 명사에서 오류 발생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t(52) = 6.74$, $p < 0.001$). 또한 특정 명사에서의 부정관사를 사용 오류는 ($m = 1.34$, $sd = 1.02$)는 그렇지 않은 명사에서 나타난 오류 평균($m = 0.23$, $sd = 0.45$)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영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사 오류 패턴에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t*-검정 결과에서 부정관사(a/an) 대신 정관사(the)를 사용하는 오류중에서도 특정 명사에서 이러한 오류가 더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이 두 종류 오류 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명사(구)에서 이 같은 오류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수집된 데이터들을 측정 공변량 분석(ANOVA) 및 후속 보호 *t*-검정(*t*-tests) 결과, 무관사(zero) 대신 정관사를 사용하는 오류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의미 유형과 관계없이 무관사(zero)에 대한 사용상의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관사(a/an)는 복수형 명사나 물질명사 또는 비가산 명사에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때 정관사 또는 무관사를 사용해야 한다. 비록 특정 조건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특정 조건이 아니면 정관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물질명사나 비가산명사에 알맞은 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화의 상대방이 명사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였을 때 정관사(the)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에 관련한 오류는 정관사에 대한 그 쓰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에 대한 오류로 여겨진다. 또한 복수 명사에 대한 관사 사용에 대한 것이 물질명사 또는 불가산명사에 대한 오류보다 훨씬 더 많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수 명사와 관련한 관사 사용 오류는 오류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즉, 물질명사 또는 불가산명사에 대한 정관사 사용 오류가 복수 명사에서의 오류보다 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t*-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도 물질명사 또는 불가산명사에 대한 관사 오류와 복수 명사와 관련한 오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영어 L2 학습자들, 특히 L1에 관사 체계가 없는 학습자들에게 명사의 가산성이 영어 관사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운 문제로 보여 왔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부정관사(a) 대신 무관사(zero)를 사용하는 오류와 이와 반대의 경우에서의 오류빈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전체 오류의 각각 9.42%, 2.75%).

가산 명사의 경우에서의 부정관사(a) 대신 무관사(zero)를 사용하는 오류와 이와 반대의 경우에서 18건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것은 학습자가 모국어(L1)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경기도 소재한 대학의 영작문 수업에 참여한 52명을 대상으로 한 관사의 오류 연구로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는 모국어와 외국어를 분리하는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 어느 특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언어능력과 언어 습득 과정의 일반적 특징으로써 EFL 학습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오류들을 말한다. 즉, 모국어에서 전이되는 간섭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오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가 어떻게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모국어에 관사가 부족한 L2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정관사와 부정관사 문맥 모두에서 관사를 자주 생략하고,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사용에 있어서 언어 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오류인 누락은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언어간 전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또 다른 유형의 오류인 과잉 일반화는 목표 언어인 영어 내 언어 내 전달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은 관사 습득에 있어서 영어 관사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으로 보아 첫 번째 가설은 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관사 사용에 있어 정확성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두

번째 가설은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몇 가지의 영작문에서의 교육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수준이 아닌 영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오류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교실 수준에서의 교육적인 함의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의 발견으로 관사 사용상 오류가 가장 많은 부분이 어휘와 표현 그리고 특정 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관사에 대한 영어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문장 구조를 함께 가르치는 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학생들이 오류인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광범위하게 오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언어의 화석화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중간언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화석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오류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교정해야 할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철저한 언어적 통사적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하며 언어학습자에게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류처리는 영문법 습득과 영어 글쓰기의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다. 문어체에서 학습자의 오류가 전반적인지를 알아야 하며 만일 적이라면 교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을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는 교실 수준에서의 언어적 오류에 초점을 두었지만, 후속 연구에는 교육적 배경이 다양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서 영어 학습의 어려움들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규명할 수 있다면 향후 더욱 한국의 영어 관사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영어 관사에 대한 작문 교육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리라 본다.

References

- [1] Corder.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40(4), pp. 649-650, 1981.
- [2] Dulay, Heidi. "Language two," Oxford University Press, 200 Madison Ave., New York, NY 10016, 1982.
- [3] Lado, Robert. "Contrastive linguistics in a mentalistic theory of language learning." In *Contrastive Linguistics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Report of the Nineteenth Annual Round Table Meeting on Linguistics and Language Studie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Monograph Series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21]*, pp. 123-35. 1968.
- [4] Selinker, Larry. "A brief reappraisal of contrastive linguistics." 1972
- [5] Selinker, L., Swain, M. and Dumas, G. "The interlanguage hypothesis extended to children," *Language learning*, 25(1), pp.139-152. 1975.
- [6] Lado, Robert.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1957.
- [7] Banathy, B., Trager, E. and Waddle, C.,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Trends in language teaching*, pp.27-56. 1966.
- [8] Selinker, L., Swain, M. and Dumas, G., The interlanguage hypothesis extended to children 1. *Language learning*, 25(1), pp.139-152. 1975.
- [9] Ellis, R. "A variable competence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RAL*, 23(1), 47-59. 1985.
- [10] Wexler, Ken. "Lenneberg's dream: Learning, normal language development and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Variation and Universals in Biolinguistics*. Brill, 239-284. 2004.
- [11] Dommergues, Y., Balandreau, J. and Rinaudo, G., "Non-symbiotic nitrogen fixation in the rhizospheres of rice, maize and different tropical grasses," *Soil Biology and Biochemistry*, 5(1), pp.83-89. 1973.
- [12] Brown, H. Douglas.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118. 2007.
- [13] Ellis, Rod.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1994.
- [14] Lennon, Paul. "Error and the very advanced learner," 31-44. 1991.
- [15] Thomas, M., "The 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by first- and second-language learners," *Applied psycholinguistics*, 10(3), pp.335-355. 1989.
- [16] Ionin, T., Heejeong, K., & K. Wexler. "Sources of linguistic knowledge in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English articles," *Lingua*, 118, 554-576. 2008.
- [17] Butler, Yuko Goto. "Second language learners' theories on the use of English articles: An

analysis of the metalinguistic knowledge used by Japanese students in acquiring the English article system,"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3), 451-480. 2002.